

# 플랫폼 자본주의와 지대 수취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공주민제 관점 에서의 한계

## 1. 마르크스주의 내부의 플랫폼 자본주의 연구 흐름

### 1.1 디지털 플랫폼과 지대 자본주의

• **마르크스주의적 지대 이론 적용** – 2023년 논문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마르크스의 지대 이론으로 분석한 Duygu Özlük은 플랫폼 경제를 생산적 노동 없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지대 개념으로 보았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이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권·소득 안정성·규제의 어려움을 낳는다고 강조한다. 또 플랫폼은 가치를 창출하고 배분하는 방식을 재편하며 마르크스주의에서 지대 추출로 간주되는 요소를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sup>1)</sup>. 연구는 이러한 플랫폼이 부와 권력의 집중을 심화시키며, 지대가 착취적 메커니즘이라는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을 강화한다고 밝힌다<sup>2)</sup>.

• **거대한 플랫폼의 지대화 경향** – 닉 스르니체크(Nick Srnicek)은 ‘자유 노동’ 논설이 사용자 온라인 활동 전반을 잉여가치의 직접 생산으로 확장하는 경향을 비판한다. 그는 특히 (1) 이 설명이 디지털 경제 전체에 일반화되기 어렵고, (2) 무급 사용자 활동에는 마르크스적 의미의 생산적 노동(임금노동·시장매개·SNLT(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 조건이 성립하기 힘들며, (3) 광고 플랫폼의 핵심은 데이터 판매가 아니라 타깃 광고 지면의 판매라는 점을 들어, 핵심은 ‘가치 창출’이 아니라 플랫폼이 인프라·접근 관문·규칙을 소유해 가치와 소득을 포획하는 ‘가치 점유(지대화)’에 있다고 본다<sup>3)</sup>. 그는 플랫폼이 경제를 성장시키기보다 데이터·인프라·지적재산권을 독점해 다른 곳에서 생산된 가치를 포획하는 구조임을 강조한다. 그의 작업은 광고 지대·인프라 지대·지적재산 지대로 플랫폼의 수익 구조를 분류하고, 개인 데이터가 가치 창출의 원천이 아니라 지대 포획을 가능하게 하는 투입재라고 설명한다<sup>4)</sup>. 스르니체크는 플랫폼이 노동을 착취한다는 주장(“자유 노동”) 대신 사용자 데이터의 ‘점유’와 국가가 부여한 지적재산권·독점권을 통해 지대를 얻는 구조를 강조한다<sup>5)</sup>.

• **플랫폼 자본주의의 리뷰** – 마르크스주의 리뷰어 브루스 로빈슨은 스르니체크의 『플랫폼 자본주의』를 검토하면서, 스르니체크가 “플랫폼 자본주의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대를 추출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내포한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요약한다<sup>6)</sup>. 리뷰는 플랫폼이 데이터와 네트워크 효과로 독점을 만들어 “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에 기생(parasitical)”하거나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자본 회전을 빠르게 해 기존 생산과 동일한 자본 회로 안에 머무른다고 분석한다<sup>7)</sup>. 또한 스르니체크가 ‘사용자 데이터는 원료로서 점유된다’고 주장하여 크리스티안 푸스 등 자유 노동 논자들을 비판한다고 소

개한다<sup>8)</sup>.

• **빅테크의 지대화 분석** – 2025년 NSER에 실린 연구는 미국의 5대 빅테크 기업의 수입·지출·자산 구조를 분석해 “기술 봉건주의”라는 가설을 반박하고, 빅테크는 지대 추출에 기반한 자본주의적 독점 기업이라고 결론짓는다. 연구는 기술 기업이 지적 자본과 물적 인프라를 이용해 지대를 확보한다고 강조해, 빅테크가 단순한 통신 인프라가 아니라 지대 추출 과정에 적극 개입한다는 점을 보여준다<sup>9)</sup>.

• **플랫폼 경제와 Achille Loria의 지대 이론** – 2023년 논문은 플랫폼 경제가 현대적 지대 추구의 한 형태인지 탐구하며, 플랫폼이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포획’하는 방식이 근대 지대 이론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논문은 자산화(assetization) 과정에서 개인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자본화된 자산이 되어 금전적·데이터 지대를 낳는다고 설명한다. 또한 현대 경제는 “기업가 정신보다 지대 추구가 지배한다”며, 플랫폼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지대’가 가장 적합한 범주라고 강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와 법적 개입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대 추출을 공공 규제로 제거하는 방안을 논한다.

• **정치적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해석** – 마이아 팔과 닐 해리스는 맥肯지 워크(McKenzie Wark)의 ‘벡터주의(vectoralism)’ 비판에서 출발해, 디지털 경제가 자본주의를 넘어 ‘기술 봉건주의’로 진화한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그들은 통신 인프라와 해저 케이블 등의 물적 조건을 중시하며, 여전히 기업과 국가의 법적·경제적 제국주의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새로운 생산양식이라는 관점보다는 역동적이고 사회적으로 결정된 역사적 유물론적 접근이 적합하며<sup>10)</sup>, 벡터주의가 주장하는 계급구조 변화가 현실의 법적·물리적 인프라 분석을 생략한다고 비판한다.

## 1.2 요약: 마르크스주의의 기여와 특징

**1. 지대의 중요성 재발견** – 최근 마르크스주의 논의는 토지·지적재산·데이터 등 희소 자산을 통한 소득을 ‘지대’로 일반화하면서, 플랫폼 기업의 부와 권력 집중을 설명한다. 이는 지대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자본 축적 과정의 핵심 요소로 본다<sup>4)</sup>.

**2. 데이터와 지식의 자본화** – 데이터를 새로운 원료로 보면서, 데이터 소유·점근을 둘러싼 독점이 지대 추출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스르니체크은 데이터가 “exploitation(착취)”보다 “appropriation(점유)”의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한다<sup>5)</sup>.

**3. 플랫폼의 유형별 분석** – 스르니체크과 후속 연구들은 광고 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 상품 플랫폼 등 유형에 따라 수익 구조와 지대 추출 메커니즘이 다름을 제시한다. 예컨대 지적재산권 지대, 광고 지대, 인프라 지대 등이다<sup>5)</sup>.

**4. 규제와 공공 소유** – 일부 연구는 플랫폼을 공적 유tility화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1)</sup>. ‘플랫폼 협동조합’이나 국유화·공공 소유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sup>11)</sup>.

**5. 노동-자본 틀의 지속** – 대부분 연구가 노동력 착취 여부(자유 노동 논쟁)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권리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플랫폼을 새로운 노동착취 공간으로 이해한다. 일부는 기술 봉건주의 또는 노동-자본 대립의 새로운 양상을 논한다.

## 2. 공주민제 관점에서 본 한계와 비판

공주민제가 제시하는 권리·자본·거버넌스 재설계는 단순히 노동자와 자본가 간 이분법을 넘어서, 디지털·알고리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분산 의결 프로토콜(DDP)을 통해 참여와 통제 권리를 분산시키는 새로운 제도적 틀을 모색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위의 마르크스주의 분석에는 여려 한계가 드러난다.

**1. 노동-자본 대립에 둑여 있음** – 많은 마르크스주의 연구는 플랫폼을 노동착취 혹은 가치 생산의 새로운 장으로 규정하고, 디지털 자산은 노동을 통해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결과로 해석한다. 그러나 공주민제는 디지털 영역에서의 가치 창출과 소유권 문제를 노동력뿐 아니라 데이터 권리·알고리즘 권리·관계 권리의 재분배 문제로 본다.

**2. 자산·지적재산권의 구조적 비판 부족** – 스르니체크과 ‘플랫폼 지대’ 논의는 지대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해결책으로 공공 소유나 규제 강화에 집중한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공통자산으로 전환하는 ‘DCA(권리·자본·거버넌스 재설계)’나 지분화된 조세(TEC) 등 권리를 통한 분산적 재설계를 제안하지 않는다. 플랫폼에 대한 국유화는 국가·정부의 새로운 집중적 통제를 날을 수 있으며, 개인이나 시민의 직접적 의사 결정권과 배당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3. 규칙 장악(rule capture) 분석의 부재** – 플랫폼 기업은 알고리즘과 표준을 통해 규칙을 장악하고 시장을 설계하는 능력을 갖는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는 가격 전략이나 독점력을 지대로 설명하면서, 규칙과 프로토콜 수준의 통제를 별도로 분석하지 않는다. 공주민제는 분산 의결 프로토콜(DDP)을 통해 프로토콜과 규칙에 대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지만, 마르크스주의 논의는 규칙 장악을 단지 독점이나 ‘자본의 권력’으로 환원한다.

**4. “출구(EXIT)”와 참여의 중요성 간과** – 마르크스주의적 해결책은 국가 규제, 과세, 국유화, 협동조합에 집중하는데, 이는 개인이 플랫폼을 탈퇴하거나 대체 시스템을 설계할 자유를 강조하지 않는다. 공주민제는 사적 플랫폼을 떠나 공공 분산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EXIT 전략과 새로운 거버넌스 참여를 지원한다.

**5. 권리 패키지의 구체성 결여** – 플랫폼 자본주의 비판은 종종 소득 재분배(세금, 기본 소득)를 강조하며, 개별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결권, 배당권, 데이터 권리)를 설계하는데는 소홀하다. 공주민제는 권리-자본-거버넌스 패키지를 통해 일반 시민이 데이터·알고리즘·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제안한다. 이는 단순한 소득 이전이 아닌 거버넌스 혁신을 목표로 한다.

**6. 역동적 혁신(샌드박스) 부재** – 마르크스주의 흐름은 대안적 제도를 실험할 ‘샌드박스’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하지 않는다. 공주민제는 DCA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권리 구조와 조세 메커니즘을 실험하며, 시장과 정부 바깥에서 혁신할 공간을 마련한다.

## 3. 결론

최근의 마르크스주의 내부에는 플랫폼 자본주의, 지대 수취, 지배적 규칙 등을 비판적

으로 분석하는 풍부한 연구가 존재한다. 스르니체과 동료들은 데이터와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지대 포획, 플랫폼의 독점적 특성 및 광고·인프라·지적재산 지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sup>5)</sup>. 이러한 연구는 플랫폼이 전통적인 노동착취 모델을 넘어 자산과 규칙을 통해 가치를 포획함을 밝히며, 기술 봉건주의 등의 과장된 담론을 비판한다<sup>9)</sup>.

그러나 공주민제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마르크스주의 비판은 여전히 노동-자본 대립과 국유화·재분배 중심의 틀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권리 구조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규칙과 프로토콜에 대한 통제권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개인들이 탈퇴(EXIT)하거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할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부족하다. 공주민제는 분산 의결 프로토콜(DDP)과 조세 지분화(TEC), 샌드박스 실험 등을 통해 권리-자본-거버넌스를 통합적으로 재설계하려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존 마르크스주의 논의는 디지털 시대의 ‘권리 혁신’과 거버넌스 혁신을 다루기엔 부족하며,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제도 설계 논의가 필요하다.

2026.01.16. 이상연

#### [참조문헌]

1)2) NEXT STAGE OF GLOBAL CAPITALISM: DIGITAL PLATFORMS AND RENTIER CAPITALISM

<https://dergipark.org.tr/tr/download/article-file/3365790>

3)4)5)(PDF) Value, rent and platform capitalism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56662964\\_Value\\_rent\\_and\\_platform\\_capitalism](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56662964_Value_rent_and_platform_capitalism)

6)7)8)11)‘Platform Capitalism’ reviewed by Bruce Robinson – Marx & Philosophy Society

[https://marxandphilosophy.org.uk/reviews/14669\\_platform-capitalism-review-by-bruce-robinson/9](https://marxandphilosophy.org.uk/reviews/14669_platform-capitalism-review-by-bruce-robinson/9)

9)Big Tech Rentiership and the Techno-Feudal Hypothesis | The New School Economic Review

<https://nsereview.org/index.php/NSER/article/view/151>

10)Capital is Dead. Long Live Capital! A Political Marxist Analysis of Digital Capitalism and Infrastructure | tripleC: Communication, Capitalism & Critique. Open Access Journal for a Global Sustainable InformationSociety

<https://www.triple-c.at/index.php/tripleC/article/view/1431>